

특별인터뷰 이경호 인제대학교 제4대 총장

## 지역사회 醫療시스템 구축 필요

### “포천시 발전 위해 포천출신 中央부처 人士 활용해야”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출신인 이경호(56·사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인제대학교 제4대 총장으로 선임돼 2007년 1월 취임하게 된다.

이 총장은 송우초등학교, 포천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3년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74년 9월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했다. 1982년 미국 몬터나주립대 환경대학원에서 환경경제학을 전공해 환경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1993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보건경제학을 전공해 보건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2년 7월 보건복지부 차관직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이 총장은 2003년 11월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인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건강증진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으로 취임하여 근무중이며 최근 인제대학교 제4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본지는 포천출신으로 사랑과 덕으로 세상을 구한다는 仁德濟世의 건학이념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인제대학교 제4대 총장으로 부임한 이경호 박사를 만나 학교 경영방향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 ▶제4대 인제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된 배경은?

▷오랜 공직생활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3년의 근무경험을 살려서 젊은이들에게 21세기에 필요한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전수하여 후진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총장 공모에 응모했다. 인제대학교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교수위원회의 투표과정을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됐다.

#### ▶인제대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인제대학교는 짧은 기간에 크게 성장한 학교로 전국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으며 仁德濟世(인술로서 세상을 구한다), 仁德濟世(어둠과 덕으로 세상을 구한다)라는 창립정신을 근간으로 자연보호, 생명존중, 인간사랑을 실천하는 학교로 국민대통합을 이룩해 내는 민족통일운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인제대학교의 모태는 백병원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립 공익법인인 백병원은 1936년 의학의 선구자 백인제 박사가 사재를 기부하여 설립한 병원이며 지난 70년간 국민보건과 의학발전을 주도하며 최첨단 의료장비 및 획기적인 의료기술로 의학계를 이끌어 왔다.

#### ▶총장으로서 학교경영방침은?

▷인제대학교를 구성하고 있는 교수, 학생, 교직원, 재단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 결집해서 더 발전하는데 최우선의 목표로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교수들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수들의 능력이 대내외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학생들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산학협력, 국제협력, 해외연수 기회를 활용해 우수한 인재로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현재 취업률 1.2위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또한 학교발전기금 모금과 기업체 협력연구 등 재원조달 노력에도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 ▶대학과 지역사회의 관계는?

▷인제대학교 메인 캠퍼스는 김해시에 위치하고 있다. 노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지원시스템과 건강관리사업을 경상남도와 김해시 등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인재양성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전국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친고령화산업을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해시에 노인들의 거동보조기구인 휠체어 등을 생산하는 사업체를 유지하고 모바일과 IT기능을 활용한 노인들의 건강관리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노인들의 건강을 향상 체크하고 급작스런 증상을 발견하여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소개하신다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1세기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산업인 보건산업을 고부가가치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이다.

한국의 보건산업은 인간게놈, 유전자치료, 맞춤 의약품 등 바이오기술(BT)의 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응 과정에서 복제배아줄기세포 생산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어 세계 생명과학기술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초석을 마련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보건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과 산업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재계포천시민회와 포천 지역사회발전과 상관관계는?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출신인 이경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인제대학교 제4대 총장으로 선임돼 2007년 1월 취임하게 된다.

▷중앙에 진출해 있는 포천출신의 인사와 연계하여 협력해 나간다면 지역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적자원의 네트워크화 작업을 포천시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네트워크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중앙과 인접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에서는 도시사와 시장·군수가 나서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지역출신 인사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와 환경청에 근무할 당시 포천시 발전과 관련된 업무에는 최대한 배려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면 1980년 초 환경청과 과장 시절에는 포천시 분노종말처리장, 쓰레기처리장 등을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보건복지부 시절에도 포천시보건소 증·개축과 장비지원 등을 비롯해 포천의료원 신·증축과 장비지원 등을 지원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 ▶정치인으로서 변신계획은?

▷포천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안하겠다는 것 보다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기여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최선을 다하겠다. 포천출신 이한동 전 국무총리 이후 중앙무대에서 활발하게 포천시민을 대변

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 ▶포천신문에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포천신문 정기독자로서 꼼꼼하게 읽어본다. 자원봉사단과 각종 단체가 매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포천신문이 2년전부터 인가 내용이나 편집에 있어서 많이 좋아졌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포천출신으로 포천을 떠나 외지에서 성공한 분들의 활약상과 칼럼 등을 보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본보기가 될 수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이경호 박사 프로필

△송우초등학교, 포천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보건학박사(보건경제학 전공) △제14회 행정고시 합격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 △환경청 과장 △보건사회부 과장 △보건사회부 공보관, 국립사회복지연수원 원장 △주 미국 대사관 보건복지참사관 △보건복지부 약정국장, 식품정책국장, 보건정책국장 △대통령 비서실 보건환경비서관, 보건복지비서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기획관리실장 △보건복지부 차관 △연세대학교, 인제대학교 초빙교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석사학위논문: 가정용 연료 대체정책의 경제성분석-서울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우리나라 보건진료원 제도의 경제성 분석 △항공정조훈장

## 지금 포천은 이렇다 ⑬ 포천지역 도로망 2013년후 일부 개통

### 계획노선 용지보상 지연 불가피

#### 포천신도시와 연계된 BRT 구축은 유동적 상황

포천지역의 최대 현안문제로 교통문제를 꼽는다. 서울과 다른 수도권과 포천지역간의 교통정책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90년대 중후반부터 포천지역에 중소기업들이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심화되고 있다.

교통량이 증가한 원인은 출퇴근 차량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퇴근 차량증가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고려해 직장생활은 포천에서 하고 거주지는 교육여건이 좋은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포천지역 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수도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각종 도로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포천지역과 관련해 수도권 연계 도로망 사업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 경기위축과 더불어 관련예산이 축소되어 사업중단 혹은 연기된 사업이 다반사로 당초 계획된 시기보다 개통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포천시와 관련된 수도권 동북부지역 광역교통계획 및 국도 확포장사업, 지방도 확포장사업, 향후 계획중인 사업 등이다.

#### ■ 수도권동북지역 광역교통계획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 : 구리시 교문동(아전JC) - 별내C - 민락동 - 축석고개 - 무봉리 - 가산면 - 군내면 - 신북대교간을 잇는 45.4km(4차로).

이 도로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 제3차 공고를 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민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이후 용지보상 등을 실시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민자고속도로 2단계 사업으로 소흘읍 - 동두천간 8km(4차로)를 계획하고 있지만 사업이 시행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제2외곽 순환고속도로 : 남양주시 화도읍(JCT) - 내촌 - 고모리 - 통일대부근 - 양주시 회천 등을 잇는 26.5km(4차로)로 사업기간은 2018년으로 건설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획이다. 아직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지만 경기도가 도비를 투자해 경기남부지역을 먼저 개설하겠다고 밝힌바 있어 시행여부나 시기는 미지수다.

▷의정부-포천간 BRT(간선급행버스) 구축 : 의정부시 민락동 - 소흘읍을 잇는 10.9km로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추진한다는 것이 국토개발연구원의 견해

다. 사업기간은 2013년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포천신도시 개발사업자가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사업시행 여부는 포천신도시 추진여부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다.

#### ■ 국도 확포장사업

▷일동 가산리- 이동 도평리를 잇는 17.1km(4차로)의 국도 47호선과 일동 가산리-영중 급주리 7.1km(4차로) 국도37호선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 시행으로 개통된 상태다.

▷마산-신원간 도로확포장 : 가산 마산리-군내 용정사거리를 잇는 5.74km(4차로)의 국도87호선은 2004년부터 공사가 진행중으로 오는 2008년말경에 개통될 예정이다.

▷영중-전곡간 도로확포장 : 영중 양문리 곱고개 - 영평초 - 창수 주원리 - 연천 백외리 등을 잇는 13.3km(4차로)로 이미 설계가 완료된 상태다. 건설교통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 내년중에 용지보상을 실시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 지방도 확포장사업

▷광양-마산간 도로확포장 : 동두천시 광양동 - 선단동 - 가산 마산리 등을 잇는 11.52km(4차로)의 지방도364호선 확포장공사다. 경기2청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 용지보상 53%를 진행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중단됐다. 내년 예산에 일부 용지보상비가 반영될 것으로 보여 착공시기는 빨라야 3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릉읍 우회도로 : 소흘 이동교리 - 내촌 진목리를 잇는 7.86km(4차로) 광릉읍 우회도로는 올해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됐다. 부족한 사업비 243억원이 내년 경기도 예산에 반영될 것으로 보여 내년 6월경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양주시 마전리-소흘 부인터 사거리 도로확포장 등 계획된 도로망 구축사업은 당초 계획된 시기보다 더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포천시 관계자는 “2013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천지역의 기본적인 교통난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포천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BRT를 추진하고 있어 도로망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허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15년 전통

# 사무용 상판 전문제조업체

독특한 기술력 · 노하우와 함께 하는

## 송이산업



대표 백봉기

